

일본 천년 고도 교토시의 최신 여행 안내 정보지

관광에 관련된 이벤트 일정 : 2005년 6월/7월



기온제 (기온에서 열리는 축제) 특집

협주곡과 기온농악(박자를 맞추어 흥을 돋우기 위해서 반주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7월의 교토는 기온제(기온에서 열리는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인다. 기온제는 야사카 신사에서 열리는 축제로 일본의 3대 축제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그 유유한 역사와 축제의 화려함, 그리고 축제가 한달간 계속 이어지는 최대의 규모로써 널리 알려져 대표적인 일본의 여름 축제로써 알려져 있다. 기원은 약 1100년 전, 일본 적국 지방의 숫자와 같은 66개의 창을 만들어, 질병퇴치를 위하여 기온오레이카미(질병퇴치를 기원하는 의식)을 신코우원에서 열었던 것이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축제를 7월의 한달간 계속 반복되어 행해지며,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다. 대 위에 산 모양을 만들고 창이나 칼을 꽂은 화려한 수레를 만들어 세우면 기온농악의 열기도 한층 더해져 그 화려함이 최고조에 달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17일에 열리는 32기의 크고 화려한 수레들이 거리를 순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레 중에 29기는 중요유형민속문화재에도 지정되어 있다. 아름다운 색실로 짜 놓은 직물, 쓰쓰리오리(일본에서 유명한 옷감), 니시진오리(일본에서 유명한 옷감) 등 미술품으로 장식된 수레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레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

어서, 방문한 사람들은 자기가 바라치는 소망에 적합한 수레를 찾아 치마키(띠나 대나무 잎으로 말아서 찐 떡)나 부적을 사서 행운이 많이 있기를 기원한다.

10일~14일 : 창세우기·수레 세우기
이날부터 각각의 거리에서 수레의 개조해서 만들기 시작한다. 모든 그물을 사용한 전통기술로 만들어지는 모습은 좋은 볼거리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14일~16일 : 밤 수레
대 위에 산 모양을 만들고 창이나 칼을 꽂은 화려한 수레의 거리 행렬이 오후의 하이라이트라면, 삼일에 거쳐 행해지는 밤 수레는 그야말로 밤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해질녘 시간이 되면 시조 거리와 카라스마 거리는 보행자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리는 많은 사람들로 메워진다. 수레를 화려하게 장식하고, 말 모양의 초롱불에 불을 켜다. 피리와 팽파리로 기온농악이 연주되고, 거리는 상점들이 나란히 늘어선다. 시조 거리에는 긴 칼 모양의 창이나, 달 모양을 한 창 등 대표적인 창들이 나열되어 눈긏게 감상하기에 좋다. 행운을 불러주는 물건이라고 잘 팔리고 있는 치마키(띠나 대나무 잎으로 말아서 찐 떡)를 사면 창에 치마키를 끼워주는 곳도 있다. 치마키는 내후년의 기온제가 올 때까

지 집 앞 현관에 걸어두면 악귀를 제거해준다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18:00~23:00까지 도로가 개방되어 보행자천국이 된다.

14일~16일 : 병풍제
야마보코 마을의 전통 깊은 가옥에서는 평상시 공개하지 않는 비장의 병풍 등을 장식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일반인들에게 구경 시켜준다. 신마찌, 무로마찌, 아부라코지, 롯카쿠 거리 등을 걸어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병풍을 구경할 수 있고, 기간 중에는 등불 등으로 연출되어진 교토의 전통 집들의 밤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15일 : 전통 예능 대회
15:00~18:00 사이에, 축제를 축하하기 위하여 야사카 신사의 경내에 설치된 농악무대로 희극, 거문고, 가야금, 피리, 시 낭송 등이 열린다.

17일 : 수레를 순환하는 공연
건물의 높이만큼 높게 만들어진 수레가 거리를 행렬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축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다. 9:00는 시조카와라마찌를 출발한다. 카와라마찌 시조, 카와라마찌 고이케, 고이케 신마찌의 (거리 순회)라고 불리는 수레가 직진으로 모서리를 돌아가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라고 할 수 있다. 고이케 거리에는 유료의 지정석이 준비되어 있다. (3,100엔, 팸플릿 포함)

17일 : 백로 춤
백로 춤은 일찍이 행렬의 중심이 되어왔던 춤이기도 하다. 암컷과 수컷 두 마리의 백로가 천천히 날개를 펼쳐 우아한 춤을 선보이는 모습은 보는 이를 매료시킨다.

24일 : 꽃으로 장식된 우산 순회
총 1000명의 사람들이 알록달록한 색깔로 장식된 꽃 우산을 들고 행렬한다. 10:00에 야사카 신사를 출발하여 시조카와라마찌, 고이케거리, 테라마찌거리, 시조거리, 토우다이지거리, 신코우거리를 거쳐 다시 야사카 신사로 되돌아 온다.

문의 사항
 ■ 교토시 관광협회 전화 : 075-752-0227
 ■ 야사카 신사 전화 : 075-561-6155



4월 & 5월의 행사 달력

6월

1일, 2일 : 교토의 딸나무 농악

헤이안 진구에 있는 대극전 정원에 농악무대가 설치되어 관세류, 금강류 등의 농악이나 희극이 열린다. 초저녁이 되면 산이나 들 따위의 토지를 비옥하게 하기 위하여 마른풀 따위를 태우는 의식이 행해지고 흰 의상으로 몸을 감싼 신자들에게 의해 무대 위에 있는 큰 횃불을 이용해 화롯불에 불을 부친다. 불에 비쳐진 대극전은 장엄한 분위기를 뿜어낸다. 입장료: 3,300엔 (미리 예매하면 2,500엔)
상연시간: 17:30~
전화: 075-771-6114 (교토농악회)



10일 : 모내기 축제 (장소 : 후쿠미이나니 대사)

후쿠미이나니는 처음부터 농사의 신으로 찬양 되어 왔다. 13:00부터 본전에서 의식이 행해지고 14:00부터 논밭에 옛날 의상을 차려 입은 사람들에게 의해 모내기가 행해진다.
Fukakusa Yabunouchi-cho, Fushimi-ku, Kyoto
전화: 075-641-7331

18일 19일 : 교토의 5대 꽃꽂이 거리 합동 전통 예능 특별 공연 (장소 : 오키자키에 있는 교토 회관 제 1홀)

교토의 [꽃꽂이 거리]에는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온 일본의 문화와 아름다움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다. 교토에서 유명한 꽃꽂이 거리는 [기온 고부, 미야마찌, 기온하가시, 카미시찌켄, 센카초]의 5곳을 꼽을 수 있다. 우아함과 세련미 속에서 태어난 꽃 가꾸기 기술은 잘 닦여진 고도의 기술로 교토 문화, 나아가서는 일본문화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하다. 5대 꽃꽂이 거리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예능을 한곳에 모아놓은 합동 공연은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의미를 가지며 매년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다. 특히 합동 공연 순서 중 [마이코(춤 예술가)의 춤]은, 5대 꽃꽂이 거리에 마이코가 모이는 것으로, 이 공연에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 많은 관객들을 매료시킨다. 특별석 9,000엔, 1등석 8,000엔, 2등석 5,000엔 (모든 자석 지정, 예약제)
Okazaki, Sakyo-ku, Kyoto
문의사항 · 신청 : 교토 전통예술진흥재단 (오오키나 재단)
전화: 075-561-3901

20일 : 대나무 베기 의식 (장소 : 쿠라바테라)

교토의 북동쪽에 위치한 쿠라바테라에서 열리는 웅망함을 거루는 행사. 헤이안 시대초기에 쿠라카절의 승려



가 불가사리한 힘을 가지고 나쁜 독사를 퇴치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여 행사 때에는 큰 독사를 가장한 길이 4미터 두께 10센티의 대나무를 법사로 가장한 8명이 2개의 그룹으로 나눠 어느쪽이 빨리 대나무를 자를 수 있는가를 경쟁한다.
관람료 200엔
Kurama Honmachi, Sakyo-ku, Kyoto
전화: 075-741-2003

30일 : 나쓰코시 하라이(여름의 막바지에 지내는 제사) (장소 : 카모가모 신사, 키타노텐만구, 치누시 신사, 키투네 신사 등)

여름의 막바지 제사인 나쓰코시하라이는 1월~6월의 반년간에 걸친 속죄를 씻어내고 남은 반년을 무사히 보낼 수 있도록 신에게 비는 제사로, 나라시대부터 시작된 행사 중 하나이다. 인형을 만들어 신전에 모시고, 커다랗게 만든 (동글게 만든 띠)를 동여매면 악귀를 제거하고 나쁜 병을 퇴치한다고 전해져 내려와 교토의 많은 신사에서 행해지고 있다. 신사에 많이 있는 '교토의 여름 풍물시' 중 하나이기도 하다.



11일 12일 : 시부나가를 위한 제사 (장소 : 혼노우지)

일본에서 유명한 전쟁시대의 장군 중의 한 사람인, 오리타시부타가유카리의 절 [혼노우지]에서 매년 시부나가를 위한 행사가 열린다. 문화 예술전, 시부나가 공양법, 농악, 장기대회, 무용 등의 행사가 있다.
Teramachi Oike-sagaru, Nakagyo-ku, Kyoto
전화: 075-231-5335

12일~30일 : 사라꽃(인도 월산의 상록목으로 여름에 흰 꽃이 핀다)을 사랑하는 모임 (장소 : 모우신지 탐앞에 있는 토우린인)

[사라 교목의 절]이라 불리우는 모우신지 탐 앞에 위치한 토우린인. 정원에는 수령 300년, 높이 15미터, 뿌리 둘레 1.5미터의 오래된 나무가 있으며 소나무 계절이 되면 흰 꽃을 피운다. 비에 젖으면 금방 떨어져 버리는 그 안타까움이 방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비스러운 세계로 유혹한다. 12일에는 꽃의 봉양과 향을 피우는

모임이 있고 기간 중에 여름특별공개로 전문가들이 직접 만든 초롱불과 일본전통 요리를 비파(동양의 현악기의 하나)의 연주를 즐기는 '저녁때부터 시작하는 사라꽃을 위한 모임'도 예정중이다.
막차를 포함한 관람권 1,575엔, 막차와 일본전통요리를 포함한 요금 5,565엔
Hanazono Myoshinji-cho, Ukyo-ku, Kyoto
전화: 075-463-1334

7월

1·2·3·7일 : 칠석제(장소 : 키타노텐만구, 키투네 신사, 코우다이시 등)

키타노텐만구에는 7일에 문 앞에 커다란 작은 대나무 장식을 달아, 10:00부터 글씨를 쓰거나 물건을 매달 때 쓰는 종이로 장식된 대나무와 공양하기 위한 물건들이 나열된다.



13:30부터 아이들의 춤이 시작된다. 키투네 신사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경내에 많은 대나무가 장식되고, 참배자들의 소원을 적은 종이가 대나무 사이사이에 걸려져 있다. 20:00까지는 대나무에 비쳐지는 등불이 밤의 경내를 환상적으로 만들어 준다. 코우다이시에서는 2일과 3일에 경내에 대나무 장식을 준비하고 해가 저자마자 바로 조명을 밝힌다.
관람료 600엔

1~3일 : 교토의 골동품제 (장소 : 파르스 프라자)

일본의 서쪽지방에서 최대의 골동품으로써 전국 330점의 미술관, 골동품 전시관이 모여있다. 해외골동품을 포함시키면 전품의 숫자가 150000점에 달한다.
개장 시간: 10:00~17:00
Takeda Tobadono-cho, Fushimi-ku, Kyoto
전화: 077-522-2307 (Gomoku-do)

7~12일 : 도자기 공양과 도자기 시 (장소 : 센본샤카토우)

행사 기간 중 10:00~20:00까지 경내 일대에서 도자기시가 국보이기도 한 센본샤카토우에서 개최된다. 10일에는 14:00부터 법요가 행해지고 생활에 가까이 사용되어지는 도자기에 감사를 표하며 도자기의 발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낸다.
Itsutsuji-dori Shichihonmatsuhigashi-iru, Kamigyo-ku, Kyoto
전화: 075-461-5973

22·23 : 일본공제 (장소 : 후키미이나니 대사)

후키미이나니는 장사번성을 기원하는 신으로써 알려져 있다. 일본전국에 있는 약 4만개의 후키미이나니의 총칭하는 분궁이기도 하다. 이날에는 막차를 포함한 관람권 1,575엔, 막차와 일본전통요리를 포함한 요금 5,565엔
Hanazono Myoshinji-cho, Ukyo-ku, Kyoto
전화: 075-463-1334

25일 : 호박 봉양 (장소 : 안라쿠지)

에도시대 안라쿠지의 승려가 25일에 호박을 먹으면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신의 가르침을 들었다고 하여 시작된 행사이다. 참배자에게 썬 호박과 차를 대접한다.
입장료 400엔
Shishigatani Goshonodan-cho, Sakyo-ku, Kyoto
전화: 075-771-5360

27·28일 : 오이를 봉한 것 (장소 : 고치잔 렌가지)

유명한 승려인 공해(774-835)가 질병을 오이에 봉하여 낫기를 기원하면 병이 낫는다는 가름침을 시초로 한다. 참배자가 오이에 이름과 연령 그리고 병명을 써서 신에게 기도를 한 후, 집에 가지고 와서 매일 몸에 안 좋은 부위를 오이로 문지르면 병이 낫도록 기도한다.
개관 시간:
27일: 12:00~21:00
28일: 6:00~18:00
입장료: 1,000엔
Omuro Ouchi, Ukyo-ku, Kyoto
전화: 075-462-5300



28~31일 : 미타라시 제사 (장소 : 시모가모 신사)

헤이안 시대의 귀족들 사이에서는 28~31일은 물에 적서 몸에 묻은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는 풍습이 있었다. 참배자들은 다리를 물에 적서 병과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빈다.
Shimogamo Izumikawa-cho, Sakyo-ku, Kyoto
전화: 075-781-0010

31일 : 천일 참배 (장소 : 아타고 신사)

해발 900이상인 아타고 산에 위치한 아타고 신사에서 열린다. 매년 7월 31일 초저녁부터 다음날에 걸쳐 절에 방문하면 행운이 따른다고 전해져, 이날에는 수많은 등산객과 참배자들로 북적거린다. 산정상까지 약 5키로의 산길을 전등을 가지고 오른다. 31일 21시와 다음날인 1일 아침 2시까지 의식이 행해진다.
Saga Atago-cho, Ukyo-ku, Kyoto
전화: 075-861-0658

일본술

일본 일본술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다. 700년대에 편찬되었다는 서간 중의 한 구절을 읽어보면 쌀을 원료로 만들어진 술에 대해서 쓰여져 있으며, 이것이 술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유명한 중국의 (오리지 토우니 전집)중에도 일본사람은 (인생 술을 즐긴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카부키 술)이라는 술을 마시는 풍습이 있다고도 기록되어 있어 일본인들이 옛날부터 얼마나 술을 사랑해 왔는가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이미 헤이안 초기에는 지금의 술 만드는 제조법과 거의 다름이 없는 기술로 다양한 종류의 술이 만들어졌다.

일본 일본술의 제조법은 지금의 법률에도 정해져 있으며 마시는 물의 온도와 다른 술들과 비교했을 때 폭이 있어야 하며, 물의 온도가 5도~55도까지라고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다. 또 겨울에서 봄, 여름에서 가을로 일본의 사계절 변화와 함께 만들어진 술로, 일본 특유의 기온풍토가 풍겨져 나오는 술이기도 하다. 일본의 술은 자연적이 혜택과 일본인들의 지혜의 결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과음만하지 않는다면, 일본 술은 몸에도 좋다고 한다. 교토에서는 시내남부에 위치한 후키미라는 곳이 옛날부터 술 만드는 기점지로 지금도 많은 술 창고가 남아있다.

켓세이칸 창조 기념관 : 1987년에 손으로 만든 노점 술집인 켓세이칸이 창업 350년을 기념하여 건설한 술을 손수 만드는 기술과 일본 술의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 해 놓은 박물관이다. 로비에서 술이나 와인을 시식할 수도 있다.
 개관 시간: 9:30~16:30
 입장료: 300엔
 Minamihama-cho, Fushimi-ku, Kyoto
 전화 : 075-623-0256



교토 야채

1200년의 긴 기간동안 일본의 수도로서 정치의 문화와 중심지로 번성하고 있던 교토. 바다와 멀리 떨어진 지리적인 조건과 절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서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 일본전통요리가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던 풍토적으로도 혜택을 받고 또 농가들의 고안등에 의하여 교토 요리의 중요한 재료로써 교토 특유의 야채인 [교토야채]가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궁중 요리에도 물론 사용되어졌던 교토야채는 왕족과 귀족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토의 많은 사람들의 식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다. (교토야채)로서 인정 받게 된 야채 중에는 이미 사라져 버린 야채도 있고, 메이지 시대 전부터 재배되었던 긴 역사를 가진 야채, 그리고 교토 부내에서 재배된 야채여야 한다는 법이 지정되어 있다.

현재 교토야채로써 인정 받고 있는 것은 43종류의 야채로써 카모에서 만든 가지, 후키미에서 만든 고추, 세이고인에서 만든 오이, 호리가와에서 만든 우엉 등, 교토의 지역이름이 붙은 제품도 많아서 교토야채의 역사의 깊이와 지역간의 강한 연대감을 알 수가 있다. 무만을 모더라도 모양, 맛, 색깔 등을 기준으로 하여 많은 종류로 나뉘어진다. 교토의 역사와 사람들의 정성으로 이어져온 교토야채는 최근들어 더욱 일본전국에서 주목을 받으며 교토야채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요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고 있다.

미코우 : 교토야채, 하모(생선), 유바(두부껍질)등 교토 식재를 사용한 요리를 즐길 수 있는 일본요리점.
 Kawaramachi Ebisugawa-nishi-iru,
 Nakagyo-ku, Kyoto
 전화 : 075-221-6846



유우젠 염색

교유우젠은, 일본에 있어서 최고의 무늬염색을 대표하는 대명사로 사용될 정도로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다양한 색깔의 그림 무늬를 키모노(한복과 같은 일본전통의상)에 새기는 유우젠 염색은 서민들의 문화가 번창하던 에도시대에 시작되었다. 그 무렵 교토의 동쪽에 위치한 히가시야마의 치온인의 앞쪽 마을에 집을 가지고 있던 부채에 그림을 그리는 화가인 미야자키 유우젠이 그린 부채의 그림이 인기를 모아, 이것을 시초로 무늬염색을 시작하게 되었다. 에도시대의 소설가로 유명한 이바라나시즈루의 작품에도 유우젠 염색이 등장한다. 거기에서 인기를 모았던 무늬를 키모노에 새겨넣은 것을 시초로 무늬 염색의 전공 분야를 만들게 된 것이 유우젠 염색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다. 유우젠 염색에는 매우 세밀하고 정밀한 작업이 요구된다. 약 20종류에 달하는 제조 과정을 전부 손작업으로 만드는 (손으로 그리는 유우젠)과 수십만장의 모형종이를 제작하는 (모형 유우젠) 2종류의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도 기술을 습득하여 직업인으로 성공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

교토 유우젠 문화회관 : 유우젠 염색의 역사, 가공과정, 굉장한 기술력을 배울 수 있는 시설이다. 아름다운 유우젠 염색을 이용한 키모노와 제작을 위해 사용되는 도구 등이 전시되어 있다. 유우젠 염색을 체험할 수도 있다. 유우젠 염색을 이용하여 손수건을 만드는 체험은 요금이 450엔부터 있고, 부채를 만드는 체험은 2,100엔이다.
 개관 시간: 9:00~17:00
 입장료: 400엔
 토, 일, 공휴일은 휴무
 Nishikyogoku Mameda-cho, Ukyo-ku, Kyoto
 전화 : 075-311-0025



불단

일본에서 불단을 봉양하기 시작한 것은 1300년 정도 전의 아마무사시 천왕이 탄생의 계기로 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 후 카마쿠라 시대, 무로마찌 시대의 변천을 거쳐 전국적으로 서민이 불단을 봉양하기 시작한 것은 에도 시대 때부터이다. 서민들이 위패를 모시게 된 것도 에도시대 때부터이다. 이렇게 하여 지금으로 이어지는 불단의 전통을 만들어냈다. 많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불단은 위패와 함께 조상들이나 돌아가신 친척들을 봉양하거나,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한 수단으로써 많은 가정에서 위패를 모시고 있다. 불단의 본래의 의미는 글자 그대로 불상이나 불상의 도구를 장식하여 부처님을 봉양하기 위한 만든 상을 가르치는 말이다. 가정에 있는 불단은 절에 있는 불단을 축소시킨 것으로 다시 말해 불단은 집안에서 절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다. 불단에는 동물, 식물, 천인 등의 조각품이나 마키에(일본전통공예품)등에 의하여 장엄하게 장식되어있다. 일본인들은 불단을 부처님보다 선조들을 봉양하기 위한 것으로써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종교와 습관인 선조신앙이 일본문화와 사회의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나카마쓰 불단 도구 가게 : 창업이래 4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불단 도구 점. 불단, 불단에 필요한 도구, 향 등이 판매되고 있고, 약 200종류를 자랑하는 향과 다양하게 변화하는 진주 장식 또는 수정 등의 돌들도 인기를 모으고 있다. 불단, 불단 도구들, 염불을 수행해주는 등, 대대로 이 가게에 찾아오는 단골손님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Teramachi Nishikioji-agaru, Nakagyo-ku, Kyoto
 전화 : 075-221-1511

교토에서 한국과 인연이 깊은 지역

● 고려미술관

고려미술관은, 정조문세에게 고려시대 이조를 중심으로 하는 17000점 이상의 미술공예품 또는 전시 시설 등을 기증 받아서, 1988년10월 25일 에 개관한 것이다. 교토총각의 북쪽에 있는 카모가모신사 가까이에 위치한 고려미술관은 조용한 주거지에 자리잡고 있다. 문에는 무사의 석상(15세기)이 한 개 배치되어 있고, 돌계단을 올라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정원은 5층 석탑이 세워져 있다. 이 모습은 마치 한국(조선)을 연상케 한다.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공예품은 삼국시대(~7세기) 통일신라(7~10세기)때부터 그리고 이조(조선왕조)말기까지 약1500년에 걸쳐 조선반도의 풍토의 혜택을 받아서 만들어진 공예품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모든 작품들이 일본에 건너 왔던 것이어서, 정조문세의 전시회는 언제부터 일본의 풍토에도 친숙함을 내뿜고 있다. 도자기, 가구, 나무 공예, 그림, 불교미술, 석상미술 등은, 이름없는 공예가들이 하루하루의 생업을 문화로 만들어낸 증거이기도 하다. 이조왕조때의 청화백기 한가지를 보더라도 바람을 일으키는 평지와 용을 휘감고 있는 듯이 유유히 흘러가는 강을 연상케 하며, 그곳에 이조왕조의 생명력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일본에는 수많은 미술관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선(한국) 미술공예품을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도 많이 있다. 하지만 그것을 전문적으로 수집 연구하고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고려미술관은 그런 의미에서도 최초의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다.



◆개관시간: 10:00~17:00
 ◆입장료: 500엔
 ◆Shichiku Kaminokishi-cho, Kita-ku, Kyoto
 ◆전화 : 075-491-1192

세계 유산



료안지

1450년에 창설된 료안지는 일본에서도 특히 유명한 절 중의 하나이다. 전쟁시대 때 몇번이나 불타서 새로 짓기를 반복하였다. 료안지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것이 동서 약25미터, 남북 약 10미터의 물결이 일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갈 정원이다. 삼면을 벽으로 둘러싸고 경내에는 식물을 심어놓았다. 정원 안에는 한그루의 나무도 풀도 없고 지면에는 흰 모래를 깔아 15개의 자연석을 배치해 놓고 있다. 그 모습을 [호랑이 새끼 건네주기](호랑이가 자신의 새끼를 데리고 와

서 용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 정원이라고 불리며, 정원에 배치된 15개의 나무는 동쪽으로 7·5·3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칠·오·삼 정원]이라고도 불린다.

정원이 만들어진 년도나 만든 사람, 제작 의도에 관해서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각 분야의 사람들에 따라서 다양한 설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무로마찌 시대 말기의 예술가 중에 유명했던 선종의 중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말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보는 이로 하여금 자유롭게 해석하고 연상케 하는 이 정원은 마치 일본에 뿌리 깊은 선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듯하다. 겉으로는 매우 단순한 구성이지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매력은 바위에 붙어 있는 이끼와 그것을 감싸고 있는 흰 자갈로 그려진 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을 자아내며 보는 이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준다.

그 외에도 [오육시지(자기 주관대로 행동한다)]라고 불리는 선을 비유한 격언을 이용한 쓰쿠바이(손을 씻기 위해 돌로 만든 물 그릇)이나, 주위에 심어진 식물들이 사계절의 아름다운 장관을 만들어 내고 그 모습이 연못에 비쳐지는 등 마음을 안정시키고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 ◆개관 시간: 8:00~17:00 ◆입장료: 500엔
- ◆Ryoanji Goryonoshita-cho, Ukyo-ku, Kyoto
- ◆전화 : 075-463-2216

현대적인 교토

테라마찌 와 신교우교쿠 상점가

교토의 중심부에서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리로 항상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테라마찌 상점가와 신교우교쿠 상점가. 테라마찌 거리는 고이케 거리에서 산조거리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물가게나 일본 과자점, 레스토랑, 카페, 미술관, 패션몰 등 60채의 가게가 나란히 서 있어서 옛수도 교토의 중심지로 이곳 출신의 사람들에게도 여행자들에게도 사랑 받고 있는 곳이다. 지금의 거리명인 [테라마찌(절 마을) 거리]의 시작은 1590년 때부터이다. 토요토미 히데오시에 의해 교토를 개조하려고 하던 계획을 일관하여 마을에서 사라지고 있는 절을 이 지역으로 이전시킨 것이 계기가 되어 [테라마찌(절 마을)]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당시는 테라마찌(절 마을) 이름대로 약 80개에 달하는 절들이 있었다. 관광객들과 수학 여행 학생들, 가족 동반자들이나 젊은 사람들 외국인들 등의 여러 사람들이 매일 이곳을 방문하여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찾으려 산책을 즐겼다. 상점가 안에는 역사적으로 오리타 시부나가가 몰살시킨 것으로도 잘 알려진 혼노우지, 사랑스러운 인형의 토장을 기원하는 아다지 등의 절도 있어서 역사와 근대성의 융합되어 교토를 대표하는 거리이다.

그리고 테라마찌에서 한 골목 동쪽에 있는 곳이 산조거리에서 시조거리까지 이어지는 이곳은 1872년에 일본에서 2번째 상점가로써 탄생한 역사 깊은 신교우교쿠 상점가이다. 당시에는 연극 소강당등도 많이 있었다. 테라마찌

에 비해 조금 거리가 좁지만 지금도 영화관, 선물가게, 음식점, 신사, 절이 나란히 나열되어 자리잡고 있으면 젊은 사람이나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활기 넘치는 거리이기도 하다. 일본인에게도 외국인에게도 교토를 방문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테라마찌 거리와 신교우교쿠 거리는 시내에서도 특히 볼거리로 가득한 곳이다.



최신 여행 정보 안내지는 인터넷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손님들이 교토에서 최고의 여행을 보내시기 위해서, 꼭 최신에 나온 안내지나, 이미 발행되었던 안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city.kyoto.jp/sankan/kankoshinko/ta_news/



교토시의 최신 여행 안내 정보지

다음 호에서는 교토의 주행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토시의 최신 여행안내정보의 편집과 간행은 아도브레인 주식회사가 주최하고 있습니다. 교토 간행물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나 질문에 대해서는 교토시 산업관광국 관광진흥과 과

장인 하시모토, 또는 토쿠라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Teramachi Oike, Nakagyo-ku, Kyoto
604-8571, Japan
Tel : 81-75-222-4133
Fax : 81-75-213-2022
E-mail : tokura@city.kyoto.jp

교토에 관련된 영어 웹사이트

교토시의 최신 여행 안내 정보(온라인)
http://www.city.kyoto.jp/sankan/kankoshinko/ta_news/
교토시의 관광&문화 정보 시스템
<http://raku.city.kyoto.jp/sight.html>
일본 여행 정보
<http://www.jnto.go.jp/eng/spn/kyoto/index.html>
교토 방문자를 위한 가이드
<http://www.kyotoguide.com>